

DOP, 700달러대로는 못 판다!

DOP 공급기업 가동률 대폭감축 ... 중국의 가격인하 요구는 계속

DOP(Diethyl Phthalate) 시장은 중국 수요처들의 가격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DOP 생산기업들이 공장가동 중단과 가동률 대폭 축소에 나섰다.

DOP 가격이 CFR FE Asia 기준 톤당 700달러까지 내려갔다는 일부 발표가 있었지만, 국내 공급기업들은 DOP 가격이 700달러라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중국 수요처들이 원하는 값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DOP 공급기업들은 원료가격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DOP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가격인하는 무리이며 700달러대로 공급할 바에는 Shut Down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대폭 낮춘 상태이다.

Continental Chemical은 싱가포르와 타이의 공장 가동률을 대폭 감축하고 나섰으며, 국내에서는 애경유화와 동양제철화학이 가동률을 줄인 상태이다.

DOP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800달러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DOP 재고량이 사실상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도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중국 수요처와 국내 DOP 공급기업의 가격 줄다리기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DOP 가격은 톤당 9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공급기업들의 가격인하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혜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15>